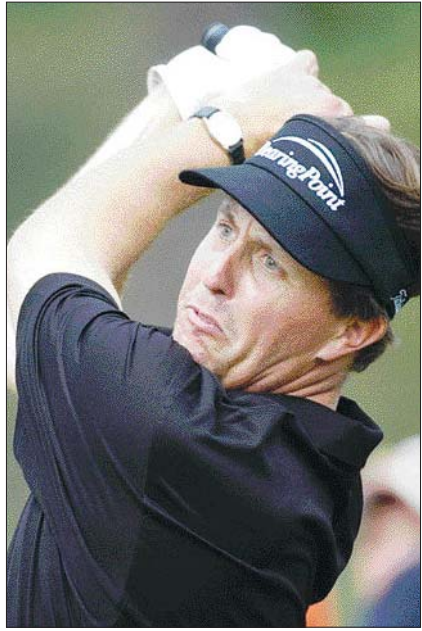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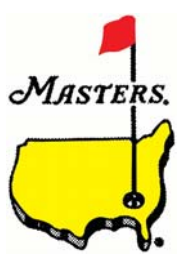
오늘 PGA 마스터스 개막



최경주-미켈슨 한 조

양보없는 샷 대결

아시아 최초의 마스터스 챔피언을 노리는 최경주(38·나이키골프·왼쪽)가 1, 2라운드에서 필 미켈슨(미국·오른쪽)과 샷대결을 벌인다.



발 시간은 11일 오후 11시34분.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작년 US오픈 우승자 앙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스투어트 에플비(호주)와 같은 조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1라운드 출발시간은 10일 오후 11시45분, 2라운드 출발시간은 12일 오전 2시52분이다.

세계랭킹 3위 어니 엘스(남아공)는 짐 퓨릭(미국), 가타야마 신고(일본), 작년 브리티시오픈 챔피언 파드리그 헤링턴(아일랜드)은 마이크 위어(캐나다), 지브 밀카싱(인도)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내일 KLPGA '김영주 오픈' 개막



'日 챔프' 신지애-송보배 제주서 진검승부

올 시즌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신지애(20·하이마트·왼쪽)와 송보배(22·슈페리어·오른쪽)가 제주에서 맞붙는다. 일본챔피언 두 명이 대결하는 무대는 11일부터 사흘간 제주 제포코스 골프장(과72·6천26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스포츠서울-김영주 여자오픈.

우수선수상을 받은 송보배는 일본으로 건너 간 뒤 올 시즌 JLPGA 개막전인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에서 우승하며 현재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7개월만에 국내 대회에 출전하는 송보배는 자신의 바통을 받아 KLPGA 1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신지애와 대결하게 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첫 대회가 4월에 열리지만 송보배와 신지애는 해외에서 일찌감치 승전보를 전해 왔다.

한편 이번 대회는 SBS골프채널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1-3라운드를 생중계한다.

2004년과 2005년 2년 연속 KLPGA 최

최혜호기자 lion@kwangju.co.kr 연합뉴스

KIA 부진

찬스때 '침묵打' 위기때 '무력投'

이유 있었네

"할 말이 없다."

지난 8일 SK와이번즈와의 경기에서 1-2로 쓴잔을 마신 뒤 KIA 타이거즈의 조병현 감독의 짧은 소감이다. 경기를 지켜본 팬들도 연장 10회까지 가는 동안 5안타에 그친 무기력한 KIA를 보면서 할 말을 잃었다.

9일까지 3승 6패로 승률이 0.333까지 떨어진 KIA의 모습은 답답할 그 자체다. 선발들은 볼런의 뒷심 부족에 헛심만 쓰고 있고, 라인업이 고정되지 않은 타선은 성급하고 미숙하다.

타이밍도 지독하게 안 맞는다. 8일 1-1 동점이던 7회 1사 만루 상황에서 대타로 나온 신인 나지완은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다음 타자는 김선빈의 대수비로 들어왔던 김종국. 김선빈은 질정의 타격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수비로 3회 실점의 발미를 제공하면서 교체됐다. 하지만 김종국도 삼진으로 돌아서면서 만루 찬스는 무위로 끝났다.

박자가 안 맞는 KIA와는 달리 SK는 10회초 신인 모창민이 대타로 나와 문현정의 초구를 받아 결승 홈런을 만들면서 팀에 귀중한 1승을 선물했다.

시즌 개막과 동시에 3연패에 빠졌을 때 만해도 '해볼만하다'며 의욕이 넘치던 선수단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

◇프로야구 중간순위 (9일 현재)

Table with columns: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Rows include SK, 삼성, 우리, 두산, KIA, 한화, LG.

았다.

9경기에서 KIA타선이 기록한 득점은 26점으로 두산에 이어 뒤에서 2번째다. 실점은 29점으로 SK에 이어 2번째로 적다. 마운드에서 29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는 동안 타선에서 기록한 점수는 26점에 불과하다 보니 경기 결과가 나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9경기에서 KIA가 기록한 잔루는 무려 59개다. 팀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전력 누수가 심각한 상태다.

타석에 선 타자들의 모습도 극과 극이다. 의기 소침해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하거나 너무 의욕이 넘치면서

성급한 모습으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한화의 선발 류현진을 만난 KIA타자들은 초반 제구력이 좋지 않던 투수를 상대로 자신감 없는 스윙으로 물러나면서 승을 챙겨주는 모양새가 됐다. 8일 SK와의 경기에서는 10회말 대타로 나와 안타를 치고 나간 김주형이 의욕이 넘치는 바람에 오버런을 하다 협살에 걸려 공격의 흐름이 끊겼다. 극과 극의 공격으로 KIA는 패를 자초하고 있다.

KIA의 엿박자가 계속된다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선발진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믿을 맨' 없는 볼런과 언제 터질지 장담 못하는 타선 탓에 선발진까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마운드마저 붕괴 되면 KIA는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필승 카드 서재응을 내기도 승 행거기에 실패한 KIA는 타격이 크다. 10일 SK와의 경기에서 이어 KIA는 금요일인 11일부터 12개의 홈런과 0.307의 타율로 선두 질주를 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해야 한다. 사직구장의 뜨거운 응원 열기도 부담이다.

노장의 노련미와 젊은 선수들의 투지가 어울린 안정된 라인업 구축이 시급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코사 22점 '헛헛' 동부 "1승 남았다"

프로농구 4강 PO 3차전

원주 동부가 2차전 패배를 설욕하고 2007-2008 SK텔레콤 T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 바짝 다가갔다.

동부는 9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트리플 타워 김주성(16점)-레지 오코사(22점)-카를로스 디슨(16점)을 앞세워 안양 KT&G를 89-82로 제압했다.

홈에서 열렸던 2차전에서 일격을 당했던 동부는 원정경기에서 패배를 설욕하며 2승1패로 앞섰다. 동부는 1승만 보태면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한다. 4차전은 11일 오후 7시 안양체육관에서 다시 열린다. 경기 초반만 봤을 때는 동부의 압승이 예상됐다.

동부는 실세없이 돌며 막는 탄탄한 수비를 앞세워 1쿼터 5분이 흐를 때까지 KT&G의 득점을 5점으로 막았고 김주성과 디슨의 끝밀슛, 강대협외의 3점포로 32-18로 달아났다.

KT&G는 1쿼터에 마린 캔들러가 9점, TJ 커밍스가 6점을 넣었을 뿐 국내 선수들이 득점에 가세하지 못해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2쿼터 2분20초가 지난 뒤 KT&G 주희정이 3점슛에 이은 추가 자유투, 다시 3점포를 연속 꽂아 넣으며 코트를 뜨겁게 달궜고 캔들러에다 이현호의 3점슛까지 꽂으며 전반이 끝날 때 45-49까지 추격했다.

더욱이 동부는 김주성이 일찌감치 4반칙에 걸리는 바람에 코칭 스태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전반에만 12점을 넣었던 김주성이 파울트러블 때문에 3쿼터에 출전하지 못하자 KT&G의 반격은 더욱 거세졌다.

3쿼터 주희정의 3점슛에 이어 양희종의 레이업이 팀을 가르면서 KT&G는 1분30초 만에 52-52 동점을 만들었고 일진일퇴의 공방 끝에 쿼터 종료 30초전 주희정의 송곳 패스를 받은 양희종의 레이업으로 70-69, 역전에 성공했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저렴한 회원권, 상공회의소에서 월드컵 경기장 및 오아시스호텔을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승수에 임직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소가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062)351-0095



9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원주 동부와 안양 KT&G의 경기에서 동부 오코사(오른쪽)의 슛을 KT&G 이현호가 막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KIA-SK전 비로 취소

9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프로야구 KIA-SK전(광주), 삼성-롯데전(대구)이 비로 취소됐다. 취소된 경기는 추후 일정으로 편성된다.

메이저리그 소식

탬파베이 류제국 빅리그행 청신호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우완투수 류제국(25·탬파베이 레이스)이 빅리그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탬파베이는 9일(한국시간) 구단 웹사이트를 통해 3선발 투수인 우완 맷 가자가 15일 짜리 부상자 명단에 오름에 따라 트리플A 더럽 볼스에 있던 류제국을 승격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출신 선수는 박찬호(LA 다저스)와 백차승(시애틀)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가자는 이날 시애틀 매리너스전(탬파베이 5-6 패)에 선발로 나와 2와 3분의 2이닝 동안 6안타, 3실점한 뒤 갑자기 오른팔 통증을 호소, 교체된 뒤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샤라포바 16강 선착

WTA 바슈&롬 챔피언십

'주부 여왕' 린제이 대븐포트(32·미국)가 3년만에 레이코트에서 승리를 맛봤다. 세계 랭킹 30위 대븐포트는 9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아델라이 아일랜드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바슈&롬 챔피언십(총상금 60만달러) 단식 1회전에서 바니아 킵(11위·미국)을 2-0(6-2 6-3)으로 꺾고 32강에 올랐다.

2005년 프랑스오픈 8강전 이후 3년만에 레이코트에서 경기를 치른 대븐포트는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지만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대븐포트는 짐 크레이바스(72위·미국)와 3회전 진출을 다룬다. 이번 대회 톱 시드를 받은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5위·러시아)는 2회전에서 바버라 잘라보바 스트리코바(149위·체코)를 2-0(6-1 6-3)으로 완파하고 16강에 선착했다. 샤라포바는 3회전에서 아나벨 메디나 가리게스(29위·스페인)와 맞붙게 됐다.